

4.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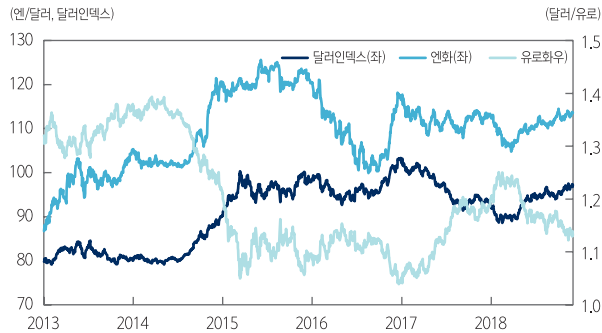
- ◆ 2018년 3/4분기 미달러화는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 및 엔화는 약세를 시현
- ◆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강세 기조 하에 아르헨티나 및 터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임
-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원/엔 환율도 하락

- 미달러화는 2018년 3/4분기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경기 호조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시현
 - 3/4분기 미달러화 지수 평균은 94.96 수준을 기록
 - 10월 이후 증시불안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경제지표 호조에 의한 금리 인상 기대로 강세를 지속
 - 미달러화 지수는 2018년 들어 최고치인 97.54(11.12일)까지 상승
- 유로화는 경제 지표 부진 및 신흥국 금융 불안 전염 우려 등의 여파로 약세를 시현
 - 유로화는 3/4분기중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 부진 속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압력, 주요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전염 우려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시현
 - 터키발 익스포져 우려에 의한 약세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예산안 제출 등의 영향으로 8월중 0.5% 절하
 - 3/4분기 이후로도 EU와 이탈리아간의 예산안 갈등 교착상태 지속, 브렉시트 합의 시한 임박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약세 지속
 - 2018년 11월말 유로화는 1.1317달러로 전분기말대비 3.1% 절하

□ 엔화는 2018년 3/4분기중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시현

- 엔화는 2018년 3/4분기중 일본 중앙은행의 저금리 유지 입장 재표명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약세를 시현
 - 2018년 3/4분기말 달러당 113.70엔으로 전분기말대비 2.5% 절하
- 3/4분기 이후 엔화는 통화정책 차별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불안, 무역갈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로 소폭 강세로 전환
 - 2018년 11월말 달러당 엔화는 113.57엔으로 9월말대비 0.1% 절상

미 달러 인덱스, 일본 엔화 및 유로화 환율



자료: Bloomberg

□ 신흥국 통화는 일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를 지속

-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강세 기조 속 일부 취약 신흥국의 위험 요인이 부각되면서 아르헨티나 및 터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를 지속
 - 주요 신흥국의 통화는 2018년 11월말 기준(전분기말대비) 평균 3.6% 절하
 - 아르헨티나, 터키, 콜롬비아 순으로 각각 23.4%, 11.9%, 9.4% 절하
- 반면 필리핀,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시장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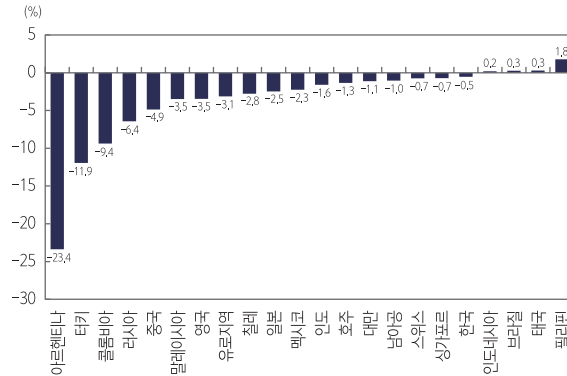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원/엔 환율도 동반 하락

- 원/달러 환율은 2018년 3/4분기말 달러당 1,109.3원으로 전분기말대비 0.5% 절상
- 원/엔 환율은 2018년 3/4분기말 엔화당 977.53원으로 전분기말대비 2.9% 절상

원화 환율



주요국 환율의 변화율



주 : 2018년 6월말대비 2018년 11월말 기준 각국 통화의 절상(+), 절하(-)율
 자료: Bloomberg

□ 실질실효환율(REER)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

- 미국 달러화는 2018년 3/4분기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한국 원화는 2018년 3/4분기 북·미 관계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다 10월 들어 하락
- 중국 위안화는 2018년 3/4분기 미국과의 무역분쟁 심화 여파로 크게 하락

주요국 실질실효환율(REER)

(2010=100)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10월
중국	122.8	120.4	118.8	121.2	121.5	125.9	126.4	122.5	122.0
한국	110.4	114.6	112.4	109.8	114.4	113.1	114.2	115.5	114.5
영국	99.3	96.8	97.7	98.0	99.7	100.5	100.0	100.3	100.6
스위스	108.2	108.7	108.8	104.5	101.9	103.5	103.6	106.9	104.9
미국	118.8	116.6	113.9	109.9	110.8	111.4	117.3	118.3	118.7
호주	92.4	94.7	91.9	94.7	91.3	89.7	89.4	87.8	87.4
유로존	90.5	90.0	92.4	95.0	95.0	97.1	96.4	98.7	97.5
일본	76.1	76.5	76.7	74.6	73.4	75.8	74.9	75.8	75.6

주 : 1) 기간의 월말 기준

2) 수치가 100이상이면 기준년대비 각국 통화의 절상을 의미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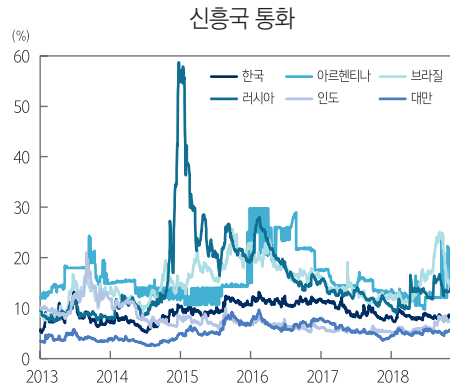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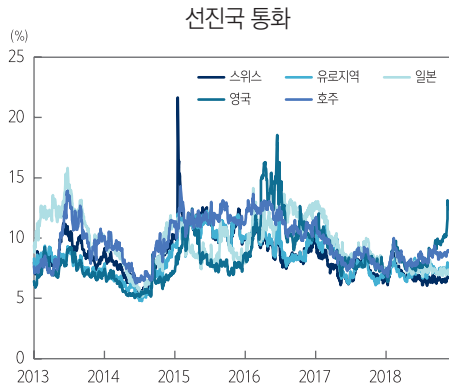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 통화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등세

- 2018년 3/4분기 영국 파운드화의 내재변동성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후 11월중 13.13(11.11일)까지 급등
 - 최근의 급등세는 브렉시트 합의 시한 임박 등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엔화의 내재변동성은 3/4분기 이후 무역갈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일부 신흥국 통화의 내재변동성이 크게 확대

- 2018년 3/4분기중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내재변동성은 외국자본 유출 등의 여파로 24.41(9.20일)까지 급등
- 2018년 3/4분기중 브라질 헤알화의 내재변동성은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정치불안 여파로 24.07(9.10일)까지 급등한 이후, 11월초 친시장 성향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주요 통화의 내재변동성



연구위원 김한수 (02-3771-0623, hanskim@kc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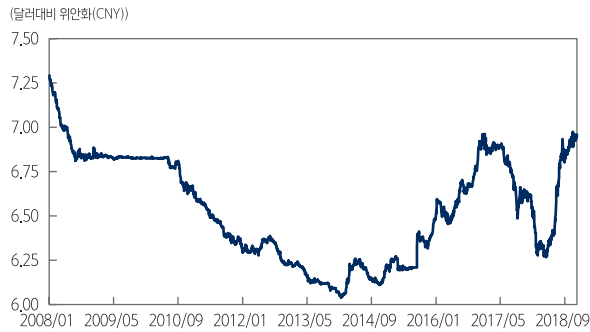
선임연구원 김현숙 (02-3771-0614, eva1103@kcmi.re.kr)

외환시장 주요 이슈: 최근 위안화의 약세 배경 및 대응

□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올해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는 10월 31일 달러당 6.976위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10월 들어 달러대비 위안화는 6.9위안을 상회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됨
 -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을 돌파하면, 위안화 가치가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6년 헤지펀드들의 대량 투매에 따른 위안화 폭락 사태 당시 7위안 사수를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소모한 바 있음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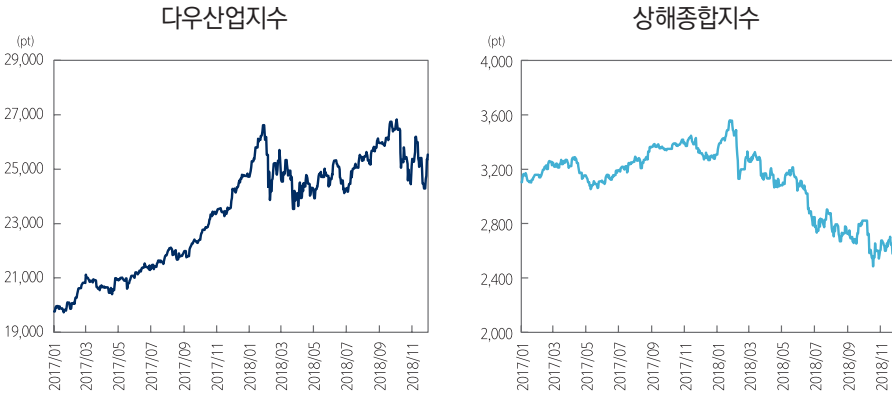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위안화 약세 배경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 회피 성향의 확대로 추가 약세 가능성에 대비한 거래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및 중국 정부의 맞대응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상호 협상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위안화에 부정적 영향
 - 금년 들어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억달러,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12월초 2,60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

- 이후 미·중 정상회담(12.1일)을 통해 추가 관세 인상 유예(3개월)를 합의 하였으나 양국간 입장차이로 교섭이 진행 중임



자료: Fnguide

- 한편, 위안화 현물환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7위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관련 거래가 우세

□ 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을 통해 선물거래 예치금제도, 경기대응요소 재적용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 개입에는 소극적

- 인민은행은 8월 3일 위안화 선물거래 예치금제도를 재도입하여 20%의 준비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동 조치는 지난 2015년 9월 위안화 급락세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2년후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면서 폐지됨
- 또한, 인민은행은 8월 26일 기준환율 산정시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s)를 반영하기로 결정
 - 그동안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환율 산정시 전일의 환율 증가와 중국외환거래 센터(CFETS)지수를 참고하여 결정해 왔는데, 경기대응요소를 추가하여 산정하기로 함
- 한편,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의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는 상황